

발달심리학의 발달과 심리학적 정체성*

황 상 민** 김 도 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발달심리학은 진화론과 생물학에 기초하여 '마인드의 기원과 변화'라는 주제를 과학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물리학적 세계관에 근거했던 초기 실험심리학의 전통과는 그 형성 초기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발달심리학을 실험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주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들을 검토해 보면, 발달심리학의 발달은 스스로 '마인드의 기원과 변화'라는 초기의 학문적 관심사를 충실히 발전시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요청된 아동의 행동과 심리특성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발달심리학 영역에서 심리학의 주요 연구주제를 직접 탐색하기보다는 이것을 연령별로 비교하는 활동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이런 활동들은 결국 발달심리학을 2류 실험심리학과 유사한 취급을 받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논의되기 시작한 구과학과 신과학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적 변화는 심리학에서도 잊혀졌던 발달심리학의 기원과 그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과학관에 기초한 심리학의 형성과 연구 초점의 변화는 바로 초기 심리학의 형성시기에 무시되었던 발달적 관점의 도입을 의미하며, 이것은 현재 발달심리학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신과학 패러다임의 형성과 더불어 심리학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발달심리학은 새롭게 등장할 심리학의 주류 패러다임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단순히 아동심리의 분야가 아닌 "마인드의 변화"에 대한 초기 심리학의 의문을 사회 변화 및 구성원들의 심리적 적응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발달심리학의 발달 과정과 그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바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심리학이 어떻게 기여하면서 현실적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教師)의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여러분과 연세대 발달심리연구실의 대학원생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swhang@yonsei.ac.kr

심리학의 한 영역으로 발달심리학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심리학이라면 발달심리학의 연구 대상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인드가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된 이래로 발달심리학은 분명히 심리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정작 이 학문분야에서 자기 자신의 발달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현대 심리학이 Wundt에 의해 시작된 실험 심리학에서 시작되었다면, 발달심리학은 실험심리학의 또 다른 아류로서 발전한 것인가? 아니면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연령이라는 잣대로 재생산하는 필터의 역할로써 어느 시점에 심리학의 한 영역으로 독립한 것인가? 또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유아, 아동들을 연구하는 아동심리학이 발달심리학이라는 이름을 통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나타나는 연령과 관련된 심리적인 현상을 연구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도발적인 질문은 발달심리학 자체의 정체성에 대한 과도한 논쟁이나 심지어 자기파괴적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심리학 영역 내에서 발달심리학의 역할과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은 바로 특정 사회에서 하나의 학문 분야가 그 자체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마인드의 변화에 대한 과학적 탐구'라는 커다란 가치를 내걸었던 발달심리학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다시 논의해 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발달심리학을 한다'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제대로 하는 것과 동시에 학문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절실한 작업이다. 또한 단순히 미국심리학 또는 서구 이론의 충실한 번역자나 수입자가 아닌, 한국 사회 속의 한국인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의 노력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발달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문제는 단순히 발달심리학의 연구 주제나 연구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최근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과학 패러다임의 논의와 더불어 심리학의 형성과 심리학의 토대가 되었던 과학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탐색과 연계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발달심리학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은 바로 '현대 심리학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장면에서 시작된다.

I. 발달심리학의 역사적 배경

일반적으로 발달심리학은 19세기 말 인간의 행동과 정신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한 심리학이라는 신생 학문의 한 분야로 시작된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초기 심리학은 의식의 구조적인 분석에 관심이 있었지, 그것의 발달과 기능에는 관심이 없었다(Cairns & Ornstein, 1978). 이런 역사적 배경은 심리학의 형성 단계에서부터 심리학의 기본적인 연구 패러다임과 발달심리학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간 마인드에 대한 탐색'과 '인간 마인드의 기원과 변화'에 대한 관심은 일면(一面) 유사하고 관련된 질문이지만 이것들에 대한 우선 순위는 분명히 있어야 했다. 발달심리학은 그 시작부터 심리학이 기초를 두었던 과학 패러다임 또는 심리학의 선구자들이 초점을 두었던 연구주제와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출생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심리학이라는 신생학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마인드'를 탐색하는 사람들은 연구방법과 연구의 틀(frames)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모델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나는 그 당시 과학의 대표주자였던 물리학에 기초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실험이라는 방법론을 인간 마인드를 연구하는 데에도 곧장 도입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실험심리학적 모델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진화론에 기초하여 생명현상과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던 생물학의 학문

적 전통이었다. 생물학의 전통에 기초한 심리학적 연구는 인간 마인드의 생물적 특성 및 생물적 변화와 유사한 마인드의 생성과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마인드를 이루는 기본 요소와 이들 요소들 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정신물리학적 노력은 바로 분자적 속성을 통해서 물리적 현상을 밝히려는 19세기 과학 패러다임의 반영이었다. 이에 반해, 발달심리학의 선구자들은 생물적 토대에 기초하여 인간의 마인드의 기원과 이것의 변화과정을 생물적, 환경적 맥락 속에서 탐색하고자 했다. 물리학을 모델로 한 실험심리학적 전통과 생물학에 기초한 또 다른 심리학의 전통은 나름대로 긴장과 대립의 상황을 짧은 순간 이나마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발달심리학의 선구자들은 현대 심리학의 형성 초기에 실험심리학자들에 비해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¹⁾ 마인드의 진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 마인드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발달심리학의 초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던 Darwin조차도 자신을 심리학이라는 신생학문 속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로 제한되기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에 대한 발달적 관점과 유전적 주제가 초기 심리학에서 완전히 무시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이것은 주요 탐구 문제였다. 하지만 전형적인 발달적 관심사는 당시 심리학자의 대부분을 이루었던 실험심리학자들에게 핵심적인 연구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다(Cairns & Ornstein, 1978).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 선구자였던 Wundt까지도 “성인의 정신적 생활(mental life)이 아동의 마음을 분석하지 않고는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차라리 그 반대가 우리가 취해야 할 진정한 입장이다(1907, p. 336)”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Wundt의 생각은 그의 제자이자 미국 대륙에서의 아동심리 연구의 선구자 중의 한사람이었던 G. Stanley Hall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초 미국 대륙에서 중요한 심리학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정신물리학에 기초한 실험심리학이 아닌 또 다른 영역의 심리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했던 Hall은 발달심리학의 기초를 이루었지만, 심리학 내에서 이 영역을 아주 미미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Hall은 심리학을 실험심리학, 역사 심리학 그리고 본능에 대한 연구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원시 인간, 그리고 신화와 같은 믿음을 연구하는 ‘역사 심리학’으로 돌려놓았다(Cairns, 1998). 역사 심리학은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새로운 과학의 중요한 특성인 실험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의 수집을 통한 부가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분야였다. 이런 Hall의 생각은 발달심리학을 실험심리학이 아닌, 제2의 심리학으로 만들게 된다.²⁾ 그러나, 이 제2의 심리학(the 2nd psychology)은 일명 2류 심리학(a second-class psychology)의 취급을 받게 되면서 그 자체의 위치를 더욱 심리학 분류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모든 발달심리학 교과서에서 초기 심리학자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주요 연구자로 첫 번째로 언급되는 Hall에 의해 발달심리학은 학문적 기반을 얻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잃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Cairns & Ornstein, 1978).

2) “Hall은 심리학의 세 분야 중에서 실험심리학이 ‘보다 중추적이며, 훨씬 더 정교한 방법으로 간단히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역사심리학과 본능 연구는 부분적으로 관찰법과 상관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과학에서는 낮은 지위에 할당되었다. 또한 이 두 분야는 감각인상, 의식경험, 그리고 지각 외부의 세상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적었다’(Cairns & Ornstein, 1978).

1) 대표적인 경우가 James Mark Baldwin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Cairns과 Ornstein (1978)을 참고.

그러나, Hall은 자신의 이론적 입장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아동과 청소년의 연구에 현실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주도로 이루어진 '아동연구 운동'(Child Study Movement)은 심리학의 연구방법이 현실 문제나 교육의 문제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본보기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후 아동연구라고 불리는 아동 심리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간략한 검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발달심리학은 그 시작에서부터 일반심리학 또는 실험심리학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하나의 학문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심리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달심리학 자체로서 학문적 생존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20세기 초의 심리학이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달심리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즉, '마인드의 기원과 변화'라는 초기 의문이 퇴색하고, 단지 아동연구의 일부로 그 모습을 축소해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발달심리학에 대한 이후의 일반적인 선입관이나 그 이후의 학문적 정체성³⁾의 혼란스러움은 바로 이 초기 형성 과정에서의 혼란과 발달심리학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생존하지 못하고 아동연구로 명맥을 유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II. 발달심리학의 정체성의 형성

19세기 말 심리학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실험심리학(또는 일반심리학)과 발달심리학 사이의 구분은 놀랄 정도로 뚜렷하였다. 정신물리학적 연구활동과 신경생리에 기초한 심리학 연구는 동시에 인간의 출생과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

께 새로운 학문 영역이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선을 그릴 수 있게 하였다.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신체 구조와 특성, 그리고 아동 그 자체에 대한 계몽주의적 관심은 새롭게 심리학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연구문제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적 관점 또는 발달적 관심사는 이 새로운 과학분야(실험심리학)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Boring, 1950).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심리학과 아동의 연구는 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하여 발달심리학이 아동 연구를 통해 심리학의 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Sears(1975)의 설명은 매우 흥미롭다.

1906년 Cora Bussey Hillis라는 미국 Iowa주의 한 주부가 옥수수과 돼지가 연구를 통해 개량될 수 있다면 동일하게 아동의 양육도 연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Iowa 대학에 아동복지연구소(Child Welfare Research Station)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 그 결과 1917년에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이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초기에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아동발달 연구의 모델이 되었다 (Cairns & Ornstein, 1978에서 재인용).

이러한 인용은 발달심리학 연구의 출발이 마인드의 변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발달과정이나 아동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 관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발달심리학은 자기완결적인 내적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동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20세기 초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적 사조는 바로 인간 아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인간 아동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에 대한 사회의 강력한 요구였다.

19세기 말 무렵, 교육, 의학 분야와 같이 (희미

3) 예를 들면, '발달심리학은 아동심리학이다', '발달심리학은 인간의 제반 특성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하게나마) 인간과 관련이 있는 전문영역들이 형성되었으며, 사회복지와 같은 지원분야의 직업 활동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20세기의 초기 20년 동안 이런 직업 영역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학교, 병원, 클리닉 그리고 사회기관에서의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로 확장되어 나갔다. 이러한 경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20년대 순수 과학의 영역에 있던 과학자들도 아동 관련 직업의 종사자들과 협동하여, 오늘날 아동발달이라고 불리우는 과학적 연구 분야를 만들었다. 마치 공학이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과학(science)으로부터 진화되어 나온 분야가 아니듯이, 아동발달은 과학 그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회적 필요성의 산물이다. ... 이 분야는 관련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Sears, 1975, p. 4)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을 과학적으로 탐색하고 아동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바로 아동에 대한 실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런 변화는 바로 심리학의 발전과 별개로 발달심리학을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비로소 이 새로운 분야는 발달심리학이라는 영역을 이루면서 생명의 기원, 종의 변형, 그리고 개체 발달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심리학의 맥락 속에서 탐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험심리학으로 대표되는 주류 심리학에서 인간 마인드의 기원과 변화의 경로를 파악하려는 발달적 관점을 여전히 무시되었다. 주류 심리학이 추구하였던 실험적 방법론의 진지(障地)에는 발달적 관점이나 인간의 정신에 대한 생물학적 탐색이 비집고 들어갈 이론적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실험적 방법론은 발달적 관점이 심리학이라는 틀 속에 살아남게 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Binet이다.

프랑스의 첫 실험심리학자이기도 했던 Binet는 인간의 정신능력의 변화를 연령에 따라 비교하는 시도를 하였다. 물론, Binet의 이런 연구는 그 당시 파리지민을 위한 보통 교육을 실시하려는 파리지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인간의 정신능력을 연령에 따라 비교하려는 그의 연구는 동시에 아동에 대한 실험심리학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당시 실험심리학자들에게 '마인드의 요소'를 파악하는 것과 '마인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발달적 관점을 되살리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Binet의 연구는 이후 발달심리학을 연령에 따라 집단을 비교하는 분야로 국한시키는 부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그의 실험실에서 조수로 활동하였던 Piaget에 의해 나중에 새로운 이론적 진전을 이루게 되지만, Binet의 방법은 그 이후 발달심리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하였다. 서로 다른 연령 집단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과정을 비교하는 것이 마치 발달심리학을 다른 심리학의 영역과 구별하게 만드는 기본 틀이 되게 한 것이다.

III. 발달심리학의 발전과 연구경향의 변화

아동에 대한 연구로 구체화된 발달심리학은 195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마인드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초기의 의문을 본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심리학의 이론과 연구활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나감에 따라, 아동심리와 발달심리학 역시 점차 서로 구분되는 하위 영역과 연구주제, 그리고 이론으로 세분화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은 아동의 특성, 즉 아주 어린 연령의 아동이 가지는 지각적·지적 능력의 출현에서부터 부모의 양육특성과 아동의 성격 및 사회행동의 형성에 대한 연구들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더 나아가 인간 사고의 진화라는 테마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지적 능력의 출현과 변화를 연구한 대표적 인물로 Jean Piaget가 있다. 그는 인간의 사고를 특징지우는 '인지구조'의 존재를 가정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특징지우는 '구조'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인지구조(cognitive structure)'의 개념으로 인간 마인드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 그의 관점은 마인드 자체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실험심리학이 아닌, 새로운 심리학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또한 그의 마인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은 바로 동시대의 '구조주의적 인식론'을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Piaget 이론의 핵심은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고의 구조'를 형성해가고, 이 구조의 특성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흥미롭게도 그는 생물학적인 훈련 배경과 더불어 심리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험을 쌓았는데, '마인드의 기원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그의 발달적 관점은 생물학 전통에서 심리학의 연구문제를 탐구하려고 했던 초기 발달심리학의 노력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였다.

마인드를 이루는 요소의 특성과 그 요소들의 관계를 탐색하였으나 마인드 자체를 보여주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실험심리학과, 외적 자극에 의한 행동적 연쇄와 강화의 관계를 탐색하였던 행동주의자들에게, Piaget는 인간 마인드의 구조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행동과 마인드의 변화를 탐색하면서 마인드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지평선을 열어 주었다.

Piaget의 연구가 인지 능력으로 표현되는 '마인드의 구조'를 보여주었다면, 부모의 양육형태나 기타 사회적 환경의 차이가 사회·정서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마인드의 특성과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발달심리학을 대표하는 또 다른 축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애착, 부모의 양육형태와

같은 다양한 사회화 이론, 그리고 기질과 성격에 관한 주제들이 그러한 연구활동들이었다. 이로써 발달심리학은 드디어 인지와 사회, 성격이라는 세부적인 심리적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심리학의 광범위한 연구주제들에 발달적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에 나타났던 발달심리학의 발전은 거꾸로 발달심리학 자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했다. 새로운 심리학 연구방법의 개발과 더불어 발달심리학의 연구주제들도 확대일로를 걸었으나, 실험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연구에 '의심없이' 적용되었다(van Geert, 1998). 즉,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인하여 '발달심리학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험적 연구, 또는 서로 다른 연령 집단들을 비교하는 학문'이라는 관념이 오히려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특히, 현실 사회에서 발달적 관점이나 연구들이 인간을 어떻게 더 적응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연구활동 그 자체가 발달심리학의 핵심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달심리학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연구방법론의 확장은 발달심리학 본래의 이론적인 관심을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래의 관심이란 바로 '마인드의 기원과 변화'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달심리학은 이러한 한계를 생태적 환경에서의 유기체 개인의 변화, 또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했다(Rogoff, 1990; Ford & Lerner, 1992; Overton, 1998; van Geert, 1998). 그러나, 아직 이런 노력은 인간이 자기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에 자기 다른 발달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일반론이나 일반 현상을 찾기가 힘들다는 상황에서 심리학의 핵심 연구 주제로 쉽게 수용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발달심리학은 마인드의 변화라는 초기 발달심리학의 형성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발달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각기 다른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등장하는 심리 현상이나 인간 적용의 문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발달심리학의 정체성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학문 정체성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이러한 과제가 성취될 수 있다면, 발달심리학은 21세기 심리학의 주류 패러다임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이론적으로 심리학 분야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사회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발달심리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의 현실적인 요청과도 직결된 것이다.

IV. 최근의 과학 패러다임 변화와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에 형성과정과 변화에 대한 논의는 바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형성과정이자 심리학 연구 활동을 특징지우는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반영한다. 19세기 말부터 과학 패러다임은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형성될 수 있는 든든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과학패러다임의 변화 아니 신과학 운동으로 대표되는 과학패러다임의 논쟁은 바로 심리학 자체에 대한 새로운 성격 규명도 가능하게 한다.

19세기의 물리학과 20세기 초의 인과론적인 사고를 자신의 과학 활동의 모태로서 받아들였던 심리학은 그 당시 물리학에 비해 학문적으로 뒤쳐져 있던 생물학에 기초한 또다른 심리학적 전통과 관점을 무시하였다. 그 와중에서 발달심리학은 제2의 심리학으로서, 사회적 필요성에 발맞춰 과학적 탐구를 수행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 가치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발달심리학은 주류 심리학이 택한 과학 패러다임과 일치할 수 없

는 모순된 특성을 그 자체로 내포하고 있었기에 사회적 필요성과 유용성이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한 유지와 발전을 추구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주제와 부가적인 방법론의 발전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의한 학문적 발전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발달심리학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 발전하였다기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그 명맥을 유지하였을 뿐이다. 물론, 이런 유지도 아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미국 사회에서의 상황이었지, 한국 사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교육적인 필요나 아동 양육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수요를 발달심리학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는지의 문제는 아마 심리학자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는가와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으로서 학문의 전망과 발전 가능성은 그 학문이 시대적인 과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으며, '변화된 현실'에 대한 학문적 설명에서 경쟁 학문에 비해 보다 나은 해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인과적 사고 패러다임의 몰락과 동시에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의 등장을 경험하고 있다(이정모, 1996; Bertalanffy, 1968; Prigogine, 1978; Thelen & Smith, 1998).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이 출현하면서, 발달심리학은 신과학 패러다임과 가장 잘 상응(相應)하는 심리학 내의 연구영역이자 관점으로 새로운 자기 변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표 1>은 구과학의 패러다임과 신과학의 패러다임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⁴⁾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판)의 첫머리에서 Willis Overton(1998)은 맹목적인 인과론을 추구하는 기존의 환원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면

4) 카오스, 복잡계, 비선형 이론 등으로 불리는 신과학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이인식(1997)을 참고.

서, 발달심리학 연구에서 관계와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발달심리학계에서도 발달 이론으로서 카오스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카오스 이론이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비교적 간과되기 쉬운 비선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운주, 1997; 조숙자, 1999).

인간의 마인드를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 요소들을 통합함으로써, 마인드의 정체를 밝힐 수 있다고 믿었던 구과학 패러다임은 이제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의 제시와 함께 그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까지 심리학 내에서 이러한 신과학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는 개별적·간헐적인 관심에 불과하지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전 영역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고체계 및 연구방법론과 기존 패러다임의 접목 혹은 발전적 해체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고운주, 1997; Berralanffy, 1968; Prigogine, 1978). 따라서 한국의 심리학 역시 이러한 과학 패러다임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발달심리학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론적 역사와 개념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아직은 소수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 몇몇 발달심리학 이론과 연구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 패러다임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van Geert, 1991; Harre & Gillet, 1994; Margulis & Sagan, 1995; Thelen & Smith, 1998). 마인드는 마치 생명체의 진화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이런 진화과정의 복잡성과 비선형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그 구조와 과정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이다.

마인드는 분명히 진화적인 현상이다. ... 무엇이 자신을 죽일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짝을 지을 수 있는지를 식별하는 것은 (대략 그 순서대로) 동물의 생존에 결

정적이었다. ... 제아무리 어리석고 기괴한 개념일지라도 일단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다면 계속 보존되고 강화되었을 것이다. ... 우리 모두는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공통의 사고방식을 물려받는다. 시간과 우주의 본질을 깨닫는 방식의 해법을 찾고 있는 물리학자들의 희망은 신기루의 어스레한 빛에 불과한 지도 모른다. 찰스 퍼스(Charles Peirce)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인식한 것처럼 말이다. 결국 진리의 척도는 그것이 쓸모가 있는지,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 남는데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없을 것이다 (Margulis & Sagan, 1995).

물론 발달심리학 앞에 펼쳐진 패러다임의 변화가 온통 장밋빛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비록 지난 100년 동안 발달심리학의 주요 연구 활동이 지각과 인지, 사회화와 성격,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는 생태적인 측면의 고려 등과 같이, 예전의 단일 영역이나 주제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이것이 곧장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의 기초 하에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데에는 무수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은 바로 '마인드의 변화'라는 초기 발달심리학자들이 가졌던 그 의문을 지금 어떻게 우리의 연구 활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구과학 패러다임에 기초한 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특성은 이제 신과학 패러다임의 틀에 의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노력들이 심리학 내부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로 제기되거나 기존의 연구주제나 문제들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재해석되거나 새롭게 탐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신과학 패러다임은 아직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다. 아쉽게도, 아니 희망스럽게도 이 관점은 19세기 말의 심리학 형성 초기에 발달심리학이 가졌던 관점이자, 동시에 지난 100년 동안 심리학이 거의 무시하였던 관점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일반 이론 차원에서 일어나는 발달 심리학의 변화는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에 기초한 심리학의 변화와 그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발달적 관점 또는 발달심리학에서 궁구(窮究)하였던 인간의 행동과 마인드(mind)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달적 차원과 이 차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론의 탐색은 바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심리학의 특성과 연구 경향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는 이런 패러다임에 따른 심리학 연구 방법이나 관점의 차이를 연구특성의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 신과학 패러다임에 기초한 심리학이 전술(前述)하였던 발달의 관점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발달심리학의 정체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아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발달심리학이 이 관점을 반영하고 이 특성을 지닌 심리학인지에 대해 우리는 아직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속의 발달심리학은 20세기 초 Binet 가 만들었던 단순 연령비교에 의한 발달 연구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험심리학의 틀 속에서 여전히 20세기 초에 가졌던 제2의 심리학이라는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과학의 패러다임이 나타남에 따라, 발달심리학은 심리학의 어떤 분야보다도 이 패러다임이 제시하고 있는 특징적 속성들을 잘 견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과학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급작스런 변화로 갑자기 일어나는 혁명적 과정이라는 Kuhn의 패러다임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심리학의 모습을 기대한다.

아마도 이 심리학의 모습은 결국 100년 전 발달심리학의 선구자들이 초기에 제기하였던 관점과 바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1세기를 바라보는 발달심리학의 주요 과제, 특히

아동심리의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바로 과학적 변화와 사회적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선구자들의 활동을 반영함으로써 그 학문적 단초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한세기의 흐름은 발달심리학자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마치 마인드의 진화과정과 유사한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선택은 바로 현재 우리 발달심리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비록 그것이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아니면 성인 이든 간에—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쓸모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 고윤주 (1997). 발달심리학을 위한 또 하나의 접근 방법: Chaos 이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 (1), 1~14.
- 이인식 (1997). 복잡성의 과학. **과학동아**, 1997년 7월호.
- 이정모 (1996). 인지과학: 개념적 기초. 이정모 (편).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 인지과학적 연관** (p. 27~54). 서울: 성원사.
- 조숙자 (1999). 다이내믹 이론이 발달심리학적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 (1), 116~128.
- Bertalanffy, L. von. (1968). *General system theory*. New York: Braziller.
- Boring, E. G. (1950). *A history of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Cairns, R. B. & Ornstein, P. A. (1978). Developmental psychology. In E. Hearst (Ed.). *The first century of experimental psychology*. Hillsdale, NJ : Erlbaum. (이은희 옮김. 1994. 발달심리학. 원호택 등 옮김. **현대심리학사: 실험심리**

- 학 일세기. 교육과학사)
- Cairns, R. B. (1998). The making of developmental psychology.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5th ed., pp. 25~105)*.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Capra, F., Steindl-Rast, D., & Matus, T. (1991). *Belonging to the universe: Explorations on the frontiers of science and spirituality*.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김재희 옮김. 1997.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서울: 범양사)
- Ford, D. H., & Lerner, R. M. (1992). *Developmental systems theory*. Newbury Park, CA: Sage.
- Harre, R. & Gillet, G. (1994). *The discursive mind*. London: Wiley.
- Margulis, L. & Sagan, D. (1995). *What is life?*. (pp. 51~52). New York: Simon & Schuster.
- Overton, W. F. (1998). Developmental psychology; Philosophy, concepts, and methodology.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5th ed., pp. 107~188)*.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rigogine, I. (1978). Time, structure, and fluctuations. *Science*, 201, 777~785.
- Rogoff, B. (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ars, R. R. (1975). Your ancients revisited: A history of child development. In E. M. Hetherington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5, pp. 1-7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elen, E. & Smith, L. B. (1998). Dynamic system theories. In W. Damon (Series Ed.) & R. M. Lerner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1 (5th ed., pp. 563~634)*.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van Geert, P. (1991). A dynamic system model of cognitive and language growth. *Psychological Review*, 98, 3~53.
- van Geert, P. (1998). We almost had a great future behind us: The contribution of non-linear dynamics to developmental-science-in-the-making. *Developmental science*, 1 (1), 143~159.
- Wundt, W. (1907). *Outlines of psychology*. New York: Stechert.

표 1. 과학 패러다임 변동 방향과 내용⁵⁾

	구과학 패러다임	신과학 패러다임
전환방향	구과학의 기본특성을 결정하는데 데카르트와 뉴턴 그리고 베이컨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데카르트식, 뉴턴식, 베이컨식이라고 한다.	신과학의 패러다임을 음살스럽다 하고, 생태론식이라 하고, 시스템식이라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그 특성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부분에서 전체로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도 전체적인 역동성은 각 부분의 특성을 모두 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분의 특성은 전체의 역동성을 이해해야 밝혀지며, 따라서 똑 떨어지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부분이란, 쪼갤 수 없이 얽히고 설킨 관계의 그물에서 드러난 무늬이다.
구조에서 과정으로	끌력에 해당하는 기본구조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작용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역학관계가 어떤 과정을 일으킨다.	드러난 구조는 모두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표현이며 전체적인 관계의 그물은 그 본질상 역동적이라고 본다.
객관적 학문에서 인식론식 학문으로	관찰자나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과 상관없 는 객관적 관찰이 이루어진다.	인식론(지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지의 연구)도 자연현상을 기술하는데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인식론의 적용 범위가 확실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과학이론에 인식론적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식체계) 건물에서 그물로	서구의 과학과 철학은 수천 년 동안 지식을 기초법칙, 기초원리, 기초단위 등의 건축물에 비유하였다.	건물이라는 비유는 그물이라는 비유로 바뀐다. 우리 현실이 관계의 그물로 여겨지듯, 서술하는 양식도 관찰된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의 그물로 표현된다.
절대치에서 근사치로	데카르트식 패러다임은 과학의 진리를 통해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 토대를 두었다.	모든 개념, 이론, 그리고 발견이란 것도 결국 제한된 범위 안에 통용되는 근사치임을 인식한다. 과학은 실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결코 아니다. 어떤 현상과 이에 대한 서술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과학자는 진리의 절대치를 다룬다기보다 실상을 제한된 범위에서 근사치로 표현하고자 한다.

5) Capra(1991)에서 필자가 재구성하였음.

표 2 신과학패러다임에 의한 심리학의 변화

	현대 심리학의 패러다임	신과학적 심리학의 패러다임
모델 학문	물리학 ☞ 실험심리를 만든 Wundt가 초기에 가졌던 최고의 학문이자 연구방법론의 모델이었다.	생물학 ☞ 생명현상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발생하였다. 이것은 심리학이 19세기 말에 생물학적인 전통에서 출발한 것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기본 가정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 ☞ 모든 인간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 유사한 반응을 하며, 각각의 차이는 측정 오차에 의한 차이로 무시된다.	각 개인이 각각 다르다. ☞ 인간은 동일한 자극이라도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며, 이런 차이는 자극을 경험하는 맥락에 좌우된다.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의 차이는 무시되어야 하는 오류가 아니라 바로 자극에 반응하는 개인의 차이를 보여준다.
특징	현상의 본질에는 외부 간섭이 없다. ☞ 법칙과 원리는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외부의 간섭, 자극이 있으며 이것은 변화에 추진력을 준다. ☞ 원리나 법칙이란 없으며, 현상 그 자체가 바로 원리나 법칙을 보여준다.
	분석의 단위가 측정 가능한 값이다. ☞ 물리적인 현상의 측정을 통해 일관된 심리현상에 관한 법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분석단위가 확률적 가능성이나 패턴(pattern)이다. ☞ 심리현상이란 개인과 현상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변화보다는 본질의 파악이 중요하다.	변화가 중요시된다. ☞ 본질이라는 고정된 것은 없으며, 현상 그 자체가 본질은 나타낸다. 따라서, 연구의 관심은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둔다.
	선형적 모델(linear model)이다. ☞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에 따른 방정식 속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정한다.	비 선형적 모델(non-linear model)이다. ☞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구분하기보다는 현상이 발생하는 맥락과 그 속에서 관심 있는 변인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맥락의 변화가 바로 변인들의 관계를 결정한다.
	분석적이다. ☞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들의 관계를 찾는다.	통합적이다. ☞ 맥락 속에서 변인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본다. 현상과 그 현상에 속한 변인들을 분리하려고 하지 않으며, 현상 그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연구대상을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한다.	연구대상이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The Development of a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it's Psychological Identity

Sang-Min Whang Dowhan Kim

Yonsei University

Developmental psychology has emerged on basis of evolution theory and biology, focusing on issue of "the origin of mind and its change", though the early experimental psychology has favored the physics' view for study on human mind. This difference has made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further away from the main stream of psychological activities. While reviewing diverse historical progress of psychology and related events, it becomes evident that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could form its identity not from the research interest on the origin of mind and its change, but from the social necessity, such as education and child welfare. This history explains why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has changed its research agenda, and came to focus on comparing different age groups, discarding a developmental view for exploring psychological issues. This trend has made it to be treated as a second class psychology.

A discussion on paradigm shift in science has resurrected the forgotten issue of the development psychology, and redefined the identity of psychology. The change of psychology in new science paradigm and its research issues has meant the incorporation of developmental view which was totally ignored at the early forming period of psychology. The progress has been a new momentum to appreciate a development view in research of psychology. If the psychology has to be reorganized based on a new science paradigm, the developmental psychology would take a leading role model for the new psychological research. This change also means that the main concern of developmental psychology in Korean society is not limited on child studies, but extends the issue of mind change for the sake of their adaptation in the changing society. Both of the developmental progres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the discussion on its identity will provide a new view and agenda of psychology to contribute for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